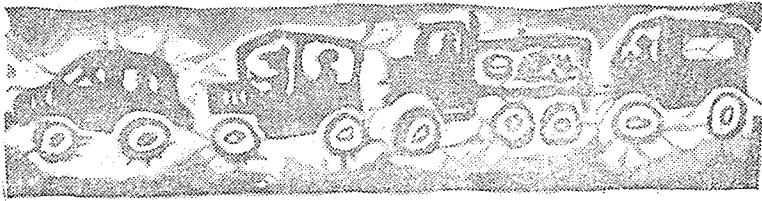


# 이 달의 주요 뉴스와 치협이 주변



請求에서 支拂에 이르는 期間 23일로 앞당겨  
 醫療保險組合協議會에 記載누락분 1천건 返送시켜  
 資金回轉短縮으로 保險參與관심 높여

= 記載필수사항 =

1. 被扶養者 카드 番號
2. 患者 주민등록 番號
3. 소속 保險組合 기호
4. 療養取扱기관 번호

醫療保險制度의 매력에 가장 둔화시키는 要因이 診療費회수기간이 늦은 것과 각 組合과의 契約에 의해 去來하기 때문에 청구 및 收金창구가 너무나 複雜하기 때문에 人力문제와 걸드려 그동안 많은 醫療機關의 저항을 받아왔으나 지난 7월에 發足한 전국醫療保險組合협의회의 신속한 業務處理로 청구에서 支拂에 이르는 期間이 23일로 크게 단축되었다.

전국 醫療保險組合협의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진료비지불청구를 접수하기 시작했는데 그 1차지불분을 9일 자금 醫療기관이 開設하고 있는 銀行(조흥은행 및 國民은행)에 오더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醫療機關들은 10일부터 現金으로 찾아 쓸 수 있게 되었다.

9일부터 支拂을 開始한 전국 醫療保

險組合협의회는 1次分 1천1백44件 6백萬원의 支給오더를 냈으며 1천件은 補完토록 반송했다.

金炳樞심사위원장은 6백22개 組合의 박스와 치과·조산원까지 합쳐 9천여 진료기관別 박스를 설치하여 80여명의 심사요원의 손과電算처리 과정을 거쳐 診療費신속지불을 할 수 있는 作業을 편결과 1개월 이내에 지불이 가능하다는 節次를 確認할 수 있었다며 전醫療기관의 보험환자진료에 적극 협력해 줄것을 希望했다.

과거처럼 個別 조합과의 去來를 할 때에는 2~3개월의 支拂기간이 所要했기 때문에 현재도 綜合병원급일 경우 2억 이상의 未收금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 固有의 使命 完遂토록

### 서울齒醫會, 指導齒醫·技工所代表誓約書받아

서울齒科醫師會는 지난 2일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가 소속기공소의 人情에 끌려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거리 또는 시간 때문에 지도치과의사 고유의 사명을 완수치 않을 때는 지도치

뿐만 아니라 심사요원들은 계산착오 여부 정당산정여부 정당적용여부 등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삭감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增減을 함께 보기 때문에 約30%는 증액되는 경우도 있다고 김심사위원장은 밝혔다.

회송처리한 1천件중 대부분은 기재누락부분인데 ①被扶養자카드번호 ②주민등록번호 ③組合기호 ④요양취급기관번호는 잊지말고 記入토록 요망했다.

支拂金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協議會 측은 모든 保險취급 의의료관은 이제부터 個別單位 보험조합에 청구하던 것을 전국 保險조합협의회에 1번 신청하면 去來은행 창구를 통해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는 節次를 弘報해 줄 것도 요망했다.

과의사의 사퇴서를 접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齒醫會는 이와 함께 의료가사법에 명시된 지도치과의사로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지킬 것과 齒協 및 서齒의

지도치과의사 규정과 세칙을 준수하며 지도치의의 지시감독에 비협조적일 경우 지체없이 서齣에 통보하고 사퇴서를 제출한다는등 4개항의 지도치과의사 서약서와 치과기공소에서는 부정기공물을 절대 취급하지 않을 것과 앞으로 기공료급은 서齣와 기공소 대표자회의에서 협의된 요금을 받고 기공물 제작 완성 후에는 기공물 제작지시서나 의뢰서에 반드시 지도치과의사와 제작기공사가 서약날인토록 하는 5개항의 지도치과의사와 기공소 대표자의 공동명의 서약서를 이달말까지 제출토록했다.

한편 서울치의회는 이달말까지 제출할 서약서는 서齣와 지도치과의사 및 기공소가 각각 보관한다는 것인데 이를 계기로 기공물 제작에 따른 모든 부작용과 책임한계를 뚜렷이 밝혀 새로운 진료체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지도치과의사가 제출할 서약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본인은 의료기사업에 명시된 지도치과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도치과의사의 본분을 지킨다.
- ② 본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의 지도치과의사 규정과 세칙을 준수한다.
- ③ 기공소에서 부정기공물등을 제작하거나 본인의 지시감독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에 이를 통보함과 동시에 사퇴서를 제출한다.
- ④ 본인은 우수 기공물 제작을 위하

어 전력을 다한다.

**설탕製品 警告文 삽입建議**  
**齒協 保社部에**  
**강력한 行政措置요청**

齒協은 지난 26일 설탕을 사용하여 제조생산되는 모든 제품포장에 「설탕의 과량섭취는 인체에 해롭습니다」 「많은 양분섭취는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삽입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保社部에 건의했다.

齒協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설탕 덜 먹기 운동을 78년부터 전개, 이의 범국민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설탕은 원당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품으로 인체에는 칼로리원 이외엔 전혀 무익한 식품가공 첨가물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무절제하게 섭취하므로 모 든 치과질환의 원인이 되어 어린이들은 충치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성인에서도 당뇨병, 비만증, 심장질환등을 유발하는 인체질환의 촉매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 전국민의 보건향상은 물론 외화절약으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당분유해 경고문이 삽입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주도록 건의했다.

**2種 醫保示範事業 착수**  
**KHDI, 옥구郡서 실시**

한국보건개발원이 주관하는 제 2종의

의료보험시범사업이 지난 1일부터 전남 옥구군 마야면 주민 1만5천백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됐다.

우리나라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의 시행방향을 제시하게될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옥구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체계를 정비 개편하여 옥구군이 주도토록 하는 등 郡行政機能을 활동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피보험자 1인당 월 45원의 급여비와 1인당 월 25원의 사무비를 국고 지원받게될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의료보험법에 규정 방향을 제시하게될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옥구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체계를 정비·개편하여 옥구군이 주관하게 된다.

현행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2종의료보험형태로 시작되는 이 시범사업은 피보험자 1인당 월 4백원의 정액보험료를 받게 되며 피보험자 1인당 월 45원의 급여비 1인당 월 25원의 사무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1차진료의 정액제를 실시,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6백원, 同지소의 경우는 3백 60원을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진료수가의 40%를 수진시 일부 부담토록 했다.

**1차분 診療費審査완료**  
**醫保協會會 10일부터 支給 실시**

全國醫療保險協會會는 지난 7월 1일부터 診療費審査 및 청구창구가 一元化됨에 따라 1차분 診療費에 대한 심사가

**正 信 齒 科 技 工 所**

指導齒科醫師 趙 鏞 起  
 代 表 金 東 洛

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 1街 198-1

(中東빌딩 401·402號室)

☎ 776-2308

완료되어 오늘 (10일)부터 일제히 당해  
醫療機關에 지급하게 된다.

同協會는 지난 7월 15일 乙支病院,  
성심병원등 27개 요양취급醫療機關에서  
청구한 1천1백44건의 診療費 청구서심  
사를 지난달 25일자로 모두 끝냈다.

### 齒科에 한하여 算定이 原則 保社部, 保險診療費算定에 回示

保社部는 의로보협 진료비 산정지침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점수로 [제 9장 제  
1절 처치 및 수술]은 齒科와 齒科로  
구분하였던 자-580부터 자-620까지의  
처치 및 수술은 치과에 한하여 산정함  
을 원칙으로 한다고 醫協의 질의에 배  
한 回示에서 밝혔다.

保社部는 또 이 회에서 편도 적출  
술(자-230)이나 구강내종양 적출술(자  
-220)의 [술후처치]는 진료비 산정지  
침 [자, 처치 및 수술등의 진료료] 중  
(3)-③에 의거 [인후과 수술처치]로서  
이는 기본진료에 포함되는 간단한 처치  
및 수술등에 해당하므로 산정할 수 없  
으며 이비인후과 영역에서의 구강내의  
인후, 후두등의 처치는 기본진료로에  
포함되는 간단한 처치 및 수술등에 적  
용되는 ⑦인두처치 ⑩후두 처치로서 수  
가산점은 별도로 할 수 없으며 구순염  
처치는 기본진료로에 포함된다고 밝혔  
다.

그러나 상악동축농증 술후성 협부낭  
포의 수술(자-5990)은 齒性이 아닌 鼻  
性으로 인해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했을  
경우 이비인후과에서도 치과수가를 산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創立 한뫼에 금성장한 韓國基督齒科醫師會

韓國基督齒科醫師會(회장 李春根)가  
창립 한뫼를 맞았다.

지난해 7월 6일 서울 동대문 감리교  
회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성도의  
생활수범과 진도로서 全齒科醫療人的  
복음화, 진료를 통한 복음전도, 회인간  
의 친목도모』를 최대 모토로 창립 기념  
예배와 창립총회를 갖고 출발한 한뫼기  
독자의회는 全文 8장 22조의 회칙을 마  
련 전국 회원확충에 중력을 경주한 결  
과 부산·전남등 2개 지방지부와 출발  
당시의 62명에서 3배가 훨씬 넘는 1백  
92명의 회원으로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

지금까지 창립 총회를 시발로 지방지  
부결성은 물론 월례조찬기도회, 성탄절  
부활절기념축하예배를 통한 성도의 교  
계등 알찬 사업을 전개했는데 올해 안  
으로 경북·전북·강원·경기·충남등  
국내지부를 순차적으로 결성하고 미국  
프스엔젤스에 본부를 둔 在美지부결성  
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前 公職齒醫會員

소속齒醫會 회원으로 編入

서울齒科醫師會는 지난 5일 증로소제  
송연크럽에서 理事 및 區會長연석회의  
를 개최하고 예산삭감으로 인해 매년  
실시해 왔던 연례행사를 타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釜山齒協  
總會에서 정관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지  
부 산하 공직치과의사는 소속치과의사  
회에 회원으로 자동 가입하게 되어 각  
구회에서는 회원으로 받아들여기로 했  
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서울  
증로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의사가 없는  
사이에 보조원인 위생사가 환자에게 아  
말감진료를 실시 당국에서 적발, 문제를  
야기시켰던 점을 감안 각구회에서는 치  
과의사의 지시없이 보조원들에게 진료  
를 맡기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키로 했  
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동회 회비가 인  
상되지 않아 년례행사로 회원들의 친목  
을 도모해 왔던 송년 학술집담회와 각  
태인파티·웃놀이 등의 행사를 폐기로  
했다.

### 肢體不自由者 구강診療 口腔保健協 아산財團後援

韓國口腔保健協會는 금년에도 계속사  
업으로 정신박약 및 지체부자유자에 대  
한 구강진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동협회의 이같은 무료진료사업은 아  
산재단의 후원으로 하게되는 것인데 홀  
트아동복지회 원생을 비롯, 20여학교  
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동협회는 지난해에도 1천32명  
을 대상으로 발치, 아말감·치석제거·  
치주치료 무약등의 혜택을 주었다.

### 各種 齒科機器 및 材料

# 清涼 齒科材料商社

대표 양 해 수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44의 2 (청량리역 앞)

전 화 966-1110·968-4466

**虫歯發生 단한번 治療로豫防  
美齒醫學研究所서 方法개발**

美구립齒醫연구소 과학자들은 일생 단한번치치료로 虫齒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보스턴의 포사이드치의 한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제프리 힐먼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충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綠色連鎖狀球齒의 돌연변이 種을 개발, 폐지에 실험한 결과, 완벽한 충치예방 효과를 입증했다고 발표.

이들에 의하면, 새 돌연변이종 박테리아를 치아에 바를 경우, 충치균에 의한 산의생성을 억제하여 충치발생을 막는다는 것.

과학자들은 원숭이 실험을 거쳐 곧人體에도 실험하게 될 이 방법으로 1회치료를 통해 평생 충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

**베일라齒大研修次  
崔상묵 공보渡美**

崔상묵 치협 공보이사는 미국달라스의 베일라치과대학에서 치주학을 연수키위해 오는 17일 3개월예정으로 출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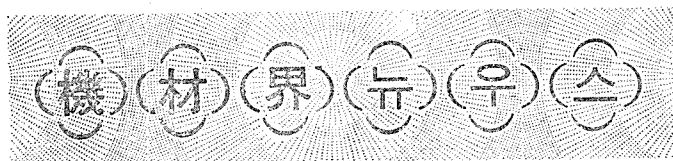
崔공보이사는 이번 출국을 계기로 미쉬간 대학등 미국의 각 치대교육현황은 물론 치주학교실의 실정을 면밀히 시찰, 치의학교육의 이론과 임상에 실제 적용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崔공보이사는 3개월후 귀국하여 會期內 齒醫新報週刊化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체류기간중 10월 21일부터 달라스에서 열리는 ADA총회 한국교체대표로도 활약하게 된다.

**APDF 各委員會  
齒協 후보委員 추천**

齒協은 지난 1일 아시아 太平洋齒科聯盟(APDF) 통신원으로 崔상묵공보이사를 선임 추천했다.

齒協은 이보다 앞서 공중보건치과위원에 金周煥(김주환치과의원장)씨를 면허와 치과교육위원에 熊秀喆(국제이사)씨를 각각 선임APDF에 추천했다.



**유니트·체어輸入 保社部서 추천**

齒科機資材規格·제정도 日本生産品 品目許可證 첨부키로  
保社·齒協·醫康機工協연석회의서 合意

保社部는 현재 齒科用 유니트·체어輸入에서 한국醫藥工業協會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는 79년도 하반기 醫藥品 등 수출입요령(保社部 告示 제36호)일부를 개정, 保社部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保社部는 지난달 23일 齒協 및 醫藥

機工協관계인 연석회의를 갖고 외국 치과용 유니트·체어 수입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 지금까지 의리기공협회의 추천을 받던 것을 보사부가 추천키로 하고 앞으로 齒協에서 치과기자재 규격을 제정하여 모든 치과기자재는 이 규격에 따라 규제토록 齒協에 위임했다.

이에따라 保社部는 지난 24일 齒協에 수입의료용구관리에 따른 협조요청을 해왔는데 이 요청에서는 保社部가 77년 하반기부터 의료시설후회 실시와 관련, 의료용구 및 치과재료 수급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 수입자동화 조치를 취한바 있다고 밝히고 일부 수입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직접 수입허가를 받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의료기구는 실수요자인 의료전문인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량품의 유통거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환자의 위해방지와 양질의 의료혜택을 보급하는 측면에서 수입불량품이 발견될 때에는 보고해 주도록 요청했다.

— 各種 齒科 機材 一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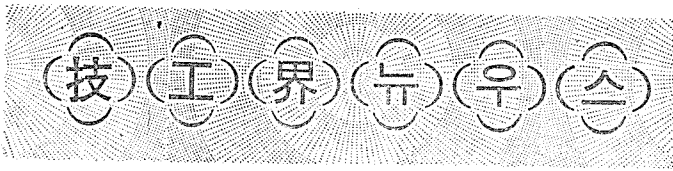
各種 機械 { 賣買  
          { 交換  
          { 修理

**大興齒科機材商社**

尹 幸 吉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761(풍년빌딩 300호)

TEL 966—9 5 4 4



指導齒科醫師 機構組織 움직임

현안문제 強力對處위해 定期的 모임으로 責務다하게

齒科技工料金 인상에 따른 年例의 파  
문과 齒科醫師 치과기공소 개설을 치과  
기공사들의 업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등  
이러한 사태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齒協산하 각지부는 기공소 지도치과의  
사제 강화를 한층 서두르는 것과 함께  
지도치과의사들의 기구조지도 바람직하  
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경기·충남·경남  
등 치협산하 각 지부장들은 현지점에서  
지도치과의사제의 강화가 가장 바람직  
하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아직 지도치  
과의사가 일정하게 회합치 않는 지부는  
빠른시일내에 이에따른 기구조직과 대  
비책등을 논의하여 보겠다고 강조하면  
서 이러한 새로운 기구를 통해 ▲지도  
치의 임무완수 ▲책임감 재인식 ▲지도  
감독강화등 당면현안문제를 신속히 처

리할 수 있어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들은 각 市道지부에 지도치  
과의사 조직이 어떤 형태로든지 조직되  
면 전국적인 정기모임을 가져 이들에  
대한 채무와 궁지를 신속히 일깨워 주  
는 계기로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  
가했다.

그런데 치협산하 지부중 지도치과의  
사들이 현안문제에 대해 자주 접촉하는  
지부는 서울과 부산으로 서울은 운영위  
원회 형식으로 회무를 처리하고 있고  
부산은 정기적인 지도치과의사회를 구  
성, 간사장에 金漢奎원장이 맡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부들도  
치과계의 모든 여건을 감안, 기구조직  
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  
된다.

齒科技工所 TO制해제

齒協保社部에 齒科需要 원활화위해 建議

齒協는 지난 26일 치과의료수요수급 의했다.  
의 원활화를 도모키 위해 齒科技工所 T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치과기공소  
O制를 전면 해제해 주도록 保社部에 건 개설TO제 해제 방안을 강구토록 결의

한바 있는 齒協은 국가 경제 발전에 따  
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치과보철환자  
가 비등되어 치과 기공소의 절재수가  
부족하며 특히 정부의 국민의료복지사  
업의 일환인 의료보호·의료보험등으로  
의료기관의 업무가 가중되어 제한된 치  
과기공시설로서는 환자의 수요에 따르  
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현행 치과  
기공소 TO제를 전면 해제하여 치과의  
료 수요수급에 실질적인 원활을 기하도  
록 한 것이다.

豫算 1백70만원 齒科技工學會

大韓齒科技工士協會 齒科技工學會(회  
장·權赫文)는 지난 6일 齒技協회관에  
서 확대임원회를 갖고 사업계획 및 예  
산안을 확정했다.

회장단을 비롯 고문, 감사, 이사등이  
참석한 이날 확대임원회에서는 ▲회원  
확충 ▲회원증발부 ▲학술집담회 ▲연  
수교육 ▲학술지 구입 비치 및 학회지발  
간등 사업계획과 1백70여만원의 예산안  
을 심의 확정했다.

한편[최근 설립된 치과기공학회 임원  
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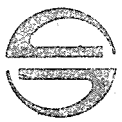
▲총무=朴龍得 ▲학술=崔鍾煥 ▲편  
집=鄭인성 ▲섭의=金榮坤.

白翎兪에 유닐·체어

새마을봉사단 寄贈

지난달 14·15일 서울시齒科醫師  
會의 지원을 받아 대한치과기공사  
협회 새마을봉사단(회장:徐基完)  
이 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적십

서울시인경 제44호



# 세창 치과기공소

## 대표 권혁문

서울시 용산구 모동1가 19-18(문정빌딩 302)

전화 22-5970

자사·해군본부의무감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西海白翎島 무료봉사 사업에서 同 奉仕團은 地域住民들의 구강보건증진에 기여할 치과 유닐·체어 1대를 백령적십자병원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된 유닐·체어는 徐基完(서울) 尹南基(삼육) 尹政雄(수선) 文一(아트) 崔鳳龍(정우) 曹棟煥(금강) 李順碩(동우) 韓國男(한국첼센)씨등 8명이 공동구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새마을봉사단 명의로 기증한 것이다.

1979年度 齒科技工士 補修教育

—서울特別市 齒科技工士會 主催로 성황리 실시—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박만호)는 지난 9일 고려대 보건전문대학 특강실에서 1979년도 치과기공사 보수 교육을 갖었다.

서울치과기공사회 주최로 오전 9시부터 실시된 이날 보수교육에는 200여명(회원 120여명 재학생 80여명)의 회원및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김홍철 서울시 학술이사의 강연으로 오후 5시 종료시까지 예년

에 볼수 없었던 대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이자리에는 80여명의 재학생들이 참석, 보다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형식에 치우쳤던 지난날 보수교육의 미비점을 탈피, 보다 알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제의 사전배부등 세심한 계획속에 진행되었다.

교육후 광희장은 내년도 보수교육에 대해 의견을 피력, 금년의 학생을 대상으로한 강사식에서 탈피, 내년에도 학술·임상이론등을 갖고 기성회원중 영향력있는 회원을 초대 학술교육에 세심한 교육을 세워 보다 나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바로잡읍니다」

齒協會誌 1979年 7月號에 掲載된 이달의 얼굴 安東柱 先生에 對한 記事中 「1951年 京齒專卒業」은 編輯子の 錯誤였기 安東柱 先生은 「1951年 政府에서 施行한 齒科醫師檢定試驗合格者이신」으로 訂正합니다.

서울시 인정 제39호

조양치과기공소

代表 金 幸 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1동 483

전화 (966) 6 8 3 4